청년 대학생 위한 포교대축전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30일까지는 신행UCC공모전
김제동 강사로 청년명사특강도
우정총국마당서 불교문화체험
포교원 "온라인 포교채널 확산"

청년대학생들을 불교로 이끄는 포교대축전이 열린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UCC신행공모전을 비롯해 방송인 김제동 씨가 진행하는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이하 대불련)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 이하 대불청)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신행축제는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교류, 포교의 장을 통해 불자로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불안과 경쟁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행축제는 청년토크(청년대학생을 위한 명사특강)와 불교문화체험, 신행UCC공모전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대학생을 위한 명사특강'이다. 10월 6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 특강은 힐링멘토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 씨를 강사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대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청년불교문화체험을 통해 청년불자뿐만 아니라 이날 참여한 대학생들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인근 우정총국 앞마당에서는 대학생들이 불교 수행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다라스크래치 사경, 레고 부처님 만들기, 360VR을 통한 사찰체험, 걱정인형만들기, 청년대학생 신행상담 등 청년대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 및 신행상담부스가 운영된다.

또 9월 30일까지 신행UCC공모전도 진행된다. 이번 신행UCC공모전은 그동안 동영상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UCC의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로 적용한다. 사진, 애니메이션, 플래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년홍보사이트 'likebuddha.net'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우수작은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포교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청년대학생들이 생산한 다양한 신행콘텐츠에 해시태그(#likebuddha, #ilikeBuddha, #부처님같이, #붓다로살자)를 붙여 개인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그동안 불자대학생으로서의 자존감 상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학 내에 불교동아리가 줄어들고,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환영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불교 신행의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또한 모바일 세대 청년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포교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불자장병·대학생 이색 콜라보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성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대불련)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즐겨요! 청춘을! 경주를!'을 주제로 경주 황룡원 일원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다.

1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육군 제9보병사단 내 불자 장병 20명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불자장병들의 대불련 캠프 동참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와 대불련이 청년 불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불자장병들이 전역후 신행활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종병들은 대불련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둘째날부터는 옛 황룡사 터에 건립된 황룡사 역사문화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 경주의 역사유적을 탐방했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새로이 만난 도반들과 함께 신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고 듣고 배웠다. 함께 청춘의 꽃을 피우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옥고 겪는 쌍용차 해고자 위해"

조계종 사노위, 8월 2일 폭염 속 조계사 일대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8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중구 덕수궁 앞 대한문 분향소까지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날 사노위원 스님 등을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이하 쌍차노조), 콜트콜텍, 파인텍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조합, 시민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행진은 체감온도 39.6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및 사측에 30번째 희생자 故김주중 씨 49재인 8월 14일 전까지 국가폭력사과, 손배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김득중 쌍차노조 지부장은 "양한웅 집행위원장, 실천위원 스님들과 함께 한지 만 5년이 됐다. 동료들과 매일 아침 남은 119명의 안전과 복직을 염원하는 절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 공식사과 및 명예회복, 국가손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 떠나보낸 30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 문제해결까지 포기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기후변화 막기위해 텀블러 사용을"

불교환경연대, 8월 1일 4차 텀블러 사용 캠페인 진행 눈길

폭염 속에서도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계 활동이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1일 서울 조계사 앞서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4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청소년, 스님 등 다양한 시민층 18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본지와 함께 진행하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은 일회용기나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해 숲 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텀블러를 함께 나눠 사용하고, 이에 맞춰 환경기금을 후원해 다른 환경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캠페인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업로드 했다. 서울 최고 기온 40도를 갱신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캠페인에 대해 묻는 행인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불교환경연대 이효상 활동가는 "더운 날씨인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나 음료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무더위는 우리가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텀블러 사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와 본지가 공동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02)720-1654 김지원 수습기자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文정부 나서라"

불교인권위, 8월 7일 '탈북 여종업원' 송환촉구 기자회견

불교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집단탈북 당사자들의 북송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 이하 인권위)는 '중국 유경식당 여성 12명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8월 7일 청와대 분수광장서 열고,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 소속 진관·지원·범상·명진 스님과 진철문 인권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인사말 △성명발표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앞서 8월 2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이번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단을 꾸리고, 평양에서 관련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인권위는 북한 불교계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박근혜 前대통령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사실과 달리,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국정원이 집단탈북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반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한 종업원들의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양심수들을 석방해 북송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인도적인 차원서 12명의 종업원들도 가족들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송환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인권위 사무총장 범상 스님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기획탈북' 사건 당사자들 송환이 첫걸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원 명진 스님은 "여종업원들 송환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을 실천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제8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 회향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은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이 주최하고,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가 주관하는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연수 활동을 7월 23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했다.

불교문화연수단은 단장 정범 스님을 중심으로 연수단장 혜원 스님, 부단장 향일 스님을 비롯해 한국 12명, 뉴욕 3명, LA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사찰 달마사에서 숙식하며 LA 시내 탐방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테하차피 태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발우공양과 사찰 예절 등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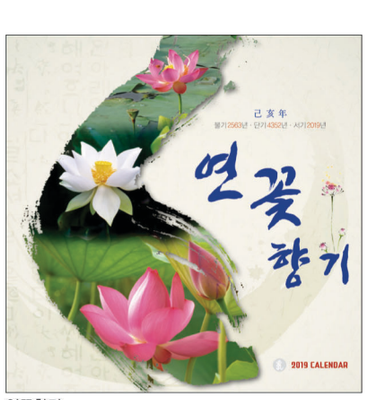
또 UCLA, 서던캘리포니아대 등 명문대 탐방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리피스 천문대, 게티 박물관 등을 방문해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혜원 스님과 디트로이트 젠센터에서 수행정진 중이던 향일 스님을 비롯하여 LA 전직 경찰관이 합류해 안전을 맡았으며, 현지 달마사 청년회 법우들이 안내를 맡아 청소년들의 연수에 많은 도움을 줬다. 노덕현 기자

2019 불교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삼보불교카렌다의 홈페이지에서 E북이나 pdf 카다로그로 카렌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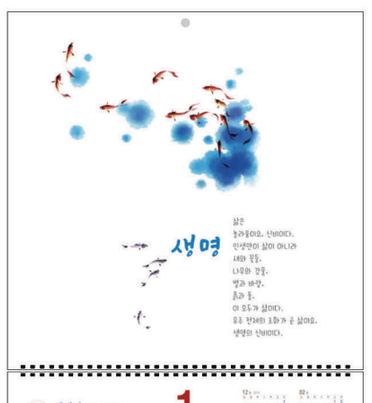

미소(성 안내는 그 얼굴)

법음이 깃든 산사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세계불교 명찰

심우도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독판(맞춤형) 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기성 카렌다가 아닌 각 사찰만의 독특한 독판(맞춤형) 카렌다를 제작하시려면 지금 전화주세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 www.samboca.com

Daum 이나 NAVER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클릭하세요.